THE GILLETTE MARRIAGE



FERDINANDO FREGA

GILLETTE의 결혼

THE FAMILY · 16

결혼

그가 걸을 때면, 한 남자였음에도, 한때 그가 몸담았던 육군 장교의 우아함과 자세가 여전히 보였다. 그리고 기숙학교에서 받은 교육도 보였다. 그곳에서는 단 하나의 규칙이 지배했다. 말은 적게 하고, 모든 것을 들어라.

1962년 10월, 그는 스물일곱 살이었다. 그가 일하던 담배 가게로 그녀가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그 순간 마음을 빼앗겼다.

키가 크고, 눈에 띄고, 누가 봐도 남부 여자의 모습이었다. 여자들만이 지을 줄 아는 그 장난스러운 눈빛까지. 그러나 그녀는 겨우 열여섯 살이었다. 이름은 Giovanna였지만, 집안 사람들에게 그녀는 언제나 Gianna였다.

그는 곧바로 그 손님에게 그녀에 대해 물었다. 누구인지, 집안은 어떤지, 어디 출신인지. 나이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시절 이런 결혼은 세 번 축복받았다. 집안으로부터, 교회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딸들의 앞날을 정해 주는 방법이라고들 했지만, 실제로 자리를 잡는 것은 아들들뿐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철도에서 일했다. 어머니는 시내에서 이름난 양장점을 운영했는데, 재봉사들을 두고 수준 높은 솜씨를 요구하며 그 대가를 아낌없이 치르는 명망 있는 집안들의 옷을 지었다.

Gianna에게는 거의 두 살 위인 언니 Francesca가 있었다. 침착하고 차분했다. 그 성품은 지금도 그대로다.

그림이 다 그려지자, 나의 아버지는 그 손님에게 그 집안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셨다. 그는 나의 어머니를 아내로 원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다. 그녀를 원했다.

그렇게 1963년 4월, 두 사람은 결혼했다.

그가 장모 앞에서 아내의 장점을 칭찬할 때마다, 장모는 웃으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Gianna는 허락을 구하는 법이 없는 훌륭한 배우라는 것이었다. 그 애는 그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가져갔다.

그 소녀를 결코 자기 뜻대로 다듬거나 자신이 상상한 모습으로 빚어낼 수 없다는 것을 나의 아버지가 깨닫는 데에는 석 달도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생각이 분명한 여자였고, 그 사실을 그에게도 지체 없이 분명히 알려 주었다.

어느 날 그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 시대가 가정 안에서 남자의 권리로 인정하던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평정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집을 나가 칼 가게로 갔고, 고기 써는 큰 식칼 하나와 정육용 칼 하나를 샀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한 번만 더 그래 봐. 밤중에 와서 당신을 죽여 버릴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연극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확신뿐이었다.

정말 그렇게 하리라는 확신.

보름 동안 그는 집 안에서 따로 떨어진 방에 문을 잠그고 잤고, 위험이 지나갔다고 확신하고 나서야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유일한 전례로 남았다.

두 사람은 레조칼라브리아에서 300킬로미터 떨어진 코센차로 이사했다.

그때는 고속도로가 없었고, 지방도로를 따라 작은 마을들의 끝없는 교통 체증을 뚫고 가는 데 거의 여섯 시간이 걸렸다.

두 번의 눈길.

3분도 안 되는 시간.

그것으로 하나의 미래가 정해지기에 충분했다. 몸으로는 62년 동안 이어지겠지만, 두 사람이 해낸 일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자식인 우리 안에서 영원히 남을 사랑 안에서.

코센차 – 1963년

두 사람은 상점과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도심 지역인 Corso Italia에 집을 얻었다. 그러나 신혼이 끝난 뒤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단계였다.

매주 월요일 나의 아버지는 새벽 2시에 집을 나서서, 아침 8시에 첫 고객의 가게 앞에 닿으셨다. 300킬로미터를 운전한 뒤, 한 주 동안 날마다 조금씩 집 가까이로 일하며 돌아와 금요일 저녁에야 다시 집에 이르셨다.

그사이 나의 어머니는 운 좋게도 집 바로 맞은편에 사는 Nora Formisano를 만났고,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다.

Nora는 어머니의 친정어머니와 같은 나이의 여자였고, 어머니에게 또 하나의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나폴리의 귀족 집안 출신으로, 그 지역에서 근무하던 내무부 고위 관리와 결혼한 사이였다. 그녀에게도 나의 어머니보다 조금 어린 자식이 셋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나의 어머니가 생리가 이상하게 늦어진다고 털어놓은 사람도 바로 그녀였다. 어머니는 늘 규칙적이었다.

왜 자꾸만 소변이 마려운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Nora는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얘야, 너 임신했구나."

나의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의 반응을 보고 싶었지만, 그에게 알리는 것은 부활절까지 기다릴 생각이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다.

그녀는 그에게 부활절 달걀을 건네며 말했다.

"나 임신했어. 우리 레조칼라브리아로 이사 가야 해. 내 아이를 여기서 낳고 싶지 않아. 내 가족이 곁에 있었으면 해."

전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승인이 필요했고, 그 뒤에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

나의 아버지는 시간을 벌 수 있으리라 생각하셨다.

그러나 1963년 12월 나의 어머니는 버스에 올라 혼자서 친정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1964년 1월 11일 Teresa를 낳았다.

Teresa가 태어나고 소식이 집안에 퍼졌을 때, 친척들은 몇 주가 지나서야 그녀를 보러 왔다.

그 일은 여자로서 그녀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고, 그녀가 앞날에 대해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와의 관계는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었다.

분노는 그녀의 눈 뒤에 갇힌 채 남아 있었다.

그사이 전근 신청은 제 길을 갔고, 1964년 5월 나의 아버지는 두 번째 부활절 선물을 받으셨다.

나의 어머니가 또 한 아이를 가진 것이다.

레조칼라브리아 – 1964년

1964년 9월, 마침내 회사의 전근이 결정되었고 두 사람은 레조칼라브리아로 이사했다.

그러나 그녀가 기대했던 친정어머니와의 목가적인 관계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친정어머니는 지배적인 사람이었고,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누구에게도 넘겨준 적이 없었다. 그녀를 귀여워하고 응석을 받아 준 사람은 아버지뿐이었고, 그 뒤로 그녀가 한 모든 일은 그에게 달려 있었다.

1965년 2월 21일이었다.

축구장.

레지나 대 코센차.

나의 아버지와 삼촌이 관중석에 있을 때, 장내 아나운서가 Vincenzo Frega라는 분은 급한 전갈이 있으니 입구로 와 달라고 알렸다.

그는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자 두 번째 방송이 나왔다.

"Vincenzo 씨, 경기를 멈출 수도 없고 부인의 진통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댁에 좀 가 주시겠습니까? 아드님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웃었다.

당황한 그는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닌 척했다.

나는 나의 아버지의 축복 속에 세상에 나왔다.

"아들을 원했지, 그 아들이 왔어. 하지만 이 녀석은 당신 인생의 십자가가 될 거야."

모두에게 곧바로 소식이 전해졌고, 그들은 마치 동방박사라도 되는 듯이 찾아왔다.

아들의 탄생은 집안의 성이 이어지는 것을 보장하는 일로 여겨졌지만, 여자 없는 남자는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 뒤 62년 동안 그것을 설명하며 살게 된다.

어쨌든, 낫과 망치보다는 십자가가 낫다.

이천 년 전의 내 동료를 이해하고, 저 위의 사정이 어떨지 짐작하기에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레조칼라브리아 – 1965년

Gianna는 겨우 열아홉 살이다.

아이가 둘, Gillette에서 일하는 남편이 하나 있고, 전업주부가 될 생각은 전혀 없다.

집안의 규칙은 이미 정해져 있다.

월급과 회사의 모든 혜택은 그녀의 손을 거친다.

나의 아버지는 Gillette의 경비 환급금으로 생활하신다. 늘 일만 하고, 불알이나 긁으며 빈둥거리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환율 시장을 지켜보기 시작한다. 나의 아버지가 매달 이탈리아 영업 경진 대회에서 우승하고, 밀라노 본사가 상품으로 소버린 금화를 보내오기 때문이다.

그러더니 영업 이사가 침실 가구 한 세트를 통째로 집으로 보내온다.

진짜 너도밤나무.

일체형 침대.

매트리스.

베개.

담요와 이불.

여름 시트와 겨울 시트.

모든 것이 독특한 양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할 말을 잃는다.

그러나 그녀는 두렵다.

안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그녀를 누가 탓할 수 있겠는가?

금요일 저녁, 나의 아버지가 문을 들어서자마자 그녀가 말한다.

"나 애가 둘이야. 새 차를 갖고 싶어."

"하지만 당신은 운전면허도 없잖아. 그걸 어떻게 운전하려고?"

"내일 당신이 나한테 새 차를 사 줄 거야. Simca 1000으로. 5도어."

아무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누구든 막으려 했다면, 삶은 생지옥이 되었을 것이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다음 날 대리점에 가서 180만 리라짜리 수표를 쓰고, 보험을 들고, 열쇠를 건네는 것이었다.

그것은 옳은 결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열이틀 뒤 그녀는 운전면허를 손에 쥐었다.

그녀가 어떻게 해냈는지는 끝내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다.

그사이 그녀의 아버지는 친정어머니의 양장점이 쓰고 있는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아끼는 딸에게 약했다.

몇 분이면 충분했다.

"아버지, 어머니 양장점에 제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여섯 달 안에 털실과 바느질 용품 가게를 열 거예요."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렀다.

몇 번의 손놀림만으로 나의 할아버지는 아내를 따로 떨어진 공간으로 옮기고, 딸에게 독립된 점포 두 칸을 내주셨다.

그녀는 집으로 가서 나의 아버지에게 300만 리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집을 사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그의 부모님께 그 돈을 부탁하라고 했다.

나의 아버지는 장단을 맞춰 주셨다.

돈이 도착했다.

그리고 가게 위의 간판도.

LANA BBB DI GENNY

그러나 그녀에게는 시의 영업 허가도 필요했는데, 그것이 없었다.

1960년대 말, 관료 체계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정치 안에 살고 정치를 통해 움직이는 하나의 터널이었다.

그 월요일 아침, 그녀는 나의 아버지에게 하루 휴가를 내고 집에서 우리와 함께 있어 달라고 했다.

그러고는 떠났다.

사막을 가로질러 부는 바람처럼.

움직이는 것은 느껴지지만, 그게 도대체 어디서 불어왔는지는 전혀 모른다.

그녀는 시청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가 허가를 신청하자 거의 비웃을 참이던 직원 하나와 마주쳤다.

다음 순간, 그녀는 그의 재킷 옷깃을 움켜쥐고 창구 밖으로 몸을 반쯤 끌어냈고, 다섯 사람이 그녀를 그에게서 떼어 내려 애쓰고 있

었다.

그때 마침 시장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Pietro Battaglia였다.

그는 훗날 이탈리아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의원을 지내게 된다.

그는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나의 어머니의 팔을 잡고 자기 집무실로 들어오라고 청했다.

10분 뒤 그녀는 제15표 상업 허가증을 들고 걸어 나왔다.

분명히 해 두자면, 그것은 이탈리아에서 대형 할인 매장을 열 때 필요한 종류의 허가였다 — 가장 높은 등급으로, 정치적 연줄 없이는 보통 얻을 수 없는 것이었다.

사업은 날아올랐다.

영업 사원들이 밖에 줄을 섰다.

결국 한 동료가 나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있잖아, 레조칼라브리아에 영업 사원이란 영업 사원은 다 애를 먹이는 가게 주인이 하나 있어."

그러자 나의 아버지가 대답하셨다.

"응, 알아. 많은 사람이 그 여자 얘기를 하더라."

그러나 그는 그녀가 자기 아내라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다.

가게는 스스로의 생명을 얻었다.

도시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곳에 물건을 사러 왔다.

남자들의 옷깃을 움켜쥐고 벽에 내동댕이치는 여자.

그들이 공무원이든 마피아 인물이든 별 차이가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도시 전체에 울려 퍼졌다.

GILLETTE 남자의 아내.

통제

어느 날 아침, 한 트럭 운전사가 시내 대로에서 부주의하게 차를 몰았다.

트럭이 나의 어머니의 차 문에 걸려 문을 뜯어냈다.

그녀가 경적을 울려도 소용이 없었다.

운전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제 길을 계속 갔고, 그사이 차는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

마침내 그는 차를 세우고 거리로 내려와, 이 빌어먹을 여자들은 운전할 줄도 모른다고 소리쳤다.

그는 여자들은 집에서 애나 키우는 편이 낫다고 큰 소리로 떠들었다.

그러고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나의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피아식으로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다.

뒷좌석에는 네 살인 누나와 세 살인 내가 있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

금방 돌아오겠다고.

밖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끝내 알지 못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 그 마피아가 나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며 용서를 빌게 되었다는 것뿐이다.

그 뒤 며칠 동안 가게에는 손님이 엄청나게 늘었다.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결국 나의 아버지는 그녀가 마진을 제대로 붙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물건을 거저 주고 있는 건지 물으셨다.

그가 집에서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녀가 말했다.

"내일 Fiat 대리점에 가서 흰색 FIAT 124 Special 사 와. 1400 엔진, 4도어로."

"하지만 Gianna," 나의 아버지가 대답하셨다. "그게 얼마인지 알아?"

"365만 리라. 지금은 당신이 내. 고칠 수도 없는 Simca 보험금이 나오면 내가 갚을게."

그것으로 충분했다.

12시간도 안 되어 새 차가 밖에 서 있었다.

말은 딱 한마디뿐이었다.

"칼라브리아에서는 이 차를 강도질에 쓴다더군. 빠르고 반응이 좋아서. 당신은 이게 왜 필요한 거야?"

그녀는 진지하게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두고 봐."

그리고 아침에 그가 일하러 나설 때면, 그녀는 언제나 물었다.

"오늘은 어디 가? 점심은 어디서 먹어?"

그는 120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대답하곤 했다.

그러면 우리 셋이 예고도 없이 그곳에 나타났다.

그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다 습관을 잃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같은 통제의 방식을 나에게로 옮기려 했다.

우리 둘 중 누구도 이기지 못했다.

그녀도.

나도.

그녀는 통제란 박탈과 매질로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첫 번째는 내게 별 효과가 없었다. 나는 곧바로 내 욕구를 다른 무언가로 돌렸고, 그것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두 번째는 아예 느끼지 않았다.

나는 반응하지 않았다.

울지 않았다.

욕하지 않았다.

나는 고통을 통제하고 있었다.

몇 년 뒤, 바로 그 통제가 다른 어려움들을 이겨 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언제나 우리가 똑같다고 믿었다.

그러나 내 안의 일부가 나의 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사실로 이겼다.

그리고 침묵으로.

현장

주간 매출 실적을 제출한 뒤인 금요일 저녁, 지구 매니저에게서 걸려 온 전화 한 통이 그에게 생각할 거리를 안겼다. 폐하, 즉 Gillette Italia의 영업 이사 Raffaele Di Tullio가 사흘 동안 그와 함께 현장에 나올 예정이며, 약속은 월요일 오전 7시 30분 레조칼라브리아의 Excelsior 호텔이라는 것이었다.

그 주의 일정에는 시내 곳곳의 영업 방문과 주변 교외 몇 곳의 방문이 들어 있었다. 이미 7월 중순이었고 그 지역이 얼마나 더워지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나의 어머니는 점심 전에 몸을 씻고 갈아입는 게 좋겠다며 그의 가방에 셔츠 한 벌을 더 넣어 주셨다.

그는 정장을 완벽히 갖추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흠잡을 데 없는 감색 양복, 하늘색 셔츠, 넥타이, 그리고 자신을 채용한 사람에게 마땅히 바쳐야 할 모든 존경.

몹시 더운 날이었고, 두 남자 모두 옷이 땀에 흠뻑 젖었다. 그러나 방문하는 동안 모든 대화의 초점은 매출 숫자가 아니었다. 이야기는 그가 행복한지, 가정생활은 어떻게 느끼는지, 회사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맴돌았다.

다음 날 나의 아버지는 현장 방문 둘째 날을 위해 다시 나오셨다.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였는지, 자신의 숫자를 너무 믿어서였는지, 그는 실수를 했다. 같은 양복을 입고 나타난 것이다. 마르기는 했지만, 전날의 땀 자국이 아직 눈에 띄게 남아 있었다.

Di Tullio는 긴 1초 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커피나 한잔하자며 그를 카페로 데려가 앉혔다.

"Vincenzo," 그가 말했다. "Gillette는 면도날을 팔지 않네. Gillette는 신뢰를 팔지. 남자가 매일 아침 제 목에 면도날을 대는 건, 그걸 판 사람을 믿을 때뿐이야. 그리고 신뢰는 깨끗한 셔츠에서 시작되네."

나의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는 이해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나의 어머니에게 그녀가 옳았다고 말했다. 또 한 번.

그는 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Di Tullio는 Excelsior 앞에서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네는 멀리 갈 걸세. 들을 줄 아니까."

그 가르침은 집안의 규범이 되었다.

나의 어머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제하셨다. 허가증, 가게들, 자동차들, 돈.

나의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통제하셨다. 본보기, 침묵, 인내, 이틀 동안 피땀을 흘린 뒤에도 흠잡을 데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품위.

그것이 결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나는 60년이 걸렸다.

허가증을 받으려고 직원의 옷깃을 움켜쥐는 한 사람.

그리고 회사가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공중화장실에서 셔츠를 갈아입는 또 한 사람.

GILLETTE의 결혼

결혼은 약속이 아니다. 그것은 면도날이다.

조심스럽게 다루면, 62년 동안 매일 아침 깨끗한 면도를 선사한다.

함부로 다루면, 목을 벤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결코 서로를 베지 않으셨다.

두 분은 그저 날마다, 면도날을 함께 쥐는 법을 배우셨을 뿐이다.

Ferdinando Frega
Gillette Man ⚔️